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 수용자<sup>1)</sup>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비난과 생존 사이에서 -\*

최경옥<sup>+</sup>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요 약]

본 연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범죄와 수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수용자 가족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자료를 삼기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남편, 자녀, 형제 등의 수용된 가족을 둔 7명의 성인이 참여했다. 연구방법으로 수용자 가족들의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인 Giorgi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가족들의 경험은 ‘굴레를 쓰고 살아가다’, ‘숨겨야 하는 고통’, ‘양가감정’,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다’라는 5개의 구성요소로 도출 되었고 본질적 주제는 「명예를 잃어지고 삶과 맞서다」라고 해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수용자 가족의 심리, 정서, 사회적 회복을 돕고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수용자, 수용자 가족, 수용자 자녀, 현상학적 연구

\*이 논문은 2016년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하였으며, 2016 추계 사회복지학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sup>+</sup>주저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1. 서론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장진 감독의 『아들』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15년 만에 하루의 시간을 허락받아 아들을 만나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이 없다. 대신 할머니에게 ‘아버지’를 닮지 않아 다행이라는 이야기만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듣고 자랐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버지와 자신은 많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런 아버지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다.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수용자 가족들은 수용자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닮지 않기를 바라거나 그런 생각을 비밀로 한 채 살아가고 있다(이경림·최경옥, 2015).

자신의 가족이 상상도 하지 못한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사실은 가족구성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준다. 특히 개인과 가족을 같은 단위로 보는 공동체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수용자의 범죄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염려하여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수용자의 가족은 또 다른 가해자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수용자 가족들은 수감 사건과 관련 없이 살아온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용자 가족은 사건자체로부터 받는 고통과 사회적 제약과 비난까지 받으며 억울한 심정으로 세상과 격리된 수용자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이경림·최경옥, 2016). 일본에서는 가족의 범죄가 지역사회에 노출된 후 주민들의 손가락질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던 가족이 자살하는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아베교코, 2015). 그러나 수용자의 가족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즉, 가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가족의 실수와 잘못을 온몸으로 맞선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이다. 고통과 트라우마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하다.

수용자 가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연구에서도 수용자 가족과 자녀들은 심리적 고통과 사회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 배우자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Miller, Kava M., 2006). 수용자 자녀들은 우울,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학습의욕 상실, 무단결석, 공격행동 등을 보이며(Murray, Joseph, 2005)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비행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ster, Holly, and Hagan, 2013).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된 바 없고 수용자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도 주로 교정이나 법, 경찰행정과 관련된 연구로 교도소안의 수용자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선영, 신연희, 2012). 그나마 화상접견,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사랑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교정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안정과 출소 후 재범 억제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전부이다(박선영, 2016). 수용자의 가족을 수용자들의 수감생활 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단이나 매개변수로서 바라볼 뿐 수용자 그 가족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다.

국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족들의 경제적 빈곤상태가 심하고 가족구조가 불안정하며 (신연희, 2015b),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수용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에 비해 학교 결석률과 무단이탈 등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연희, 2015c).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용자들의 주관적 의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수용자 가족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수용자 가족이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시선에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수용자 가족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떻게 생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여기에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수용자 가족에 대한 다양한 국내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범죄인들이 대부분 가족 내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결손가정이었거나 사회부적응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의 범죄가 반드시 그 부모와 관련되어 있거나 원인이 가족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자료나 체험이 발표되기도 한다(수 클리블드, 2015).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에서 수용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나 문제가 삽화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정보만으로 수용자 가족이 겪고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와 부적응, 가해와 피해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겪게 되는 삶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기는 어렵다. 이경림과 최경옥(2016)이 발표한 '이 땅에서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이라는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드러난 수용자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자 가족의 대표적인 가족실태나 내재된 문제들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지만 이 연구는 서비스 개입을 하고 있는 40가정의 생활실태와 5가정에 대한 사례연구라서 여전히 수용자 가족의 체험과 경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수용자 가족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자나 실천가들의 시선이 아닌 수용자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비춰진 삶의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부터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들은 가족의 수감과정에서 남겨진 가족이 경험하는 것 즉, 가해자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거나 생존자로서 살아온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이 구성한 의미와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였다. 미리 가정하지 않고 사물이나 현상자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 속에서 수용자 가족이 경험한 본질을 잘 탐구해 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감과 관련된 사건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하거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삶의 주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 속에서 녹아 나온, 삶의 주체자인 수용자 가족들의 목소리에만 더욱 집중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그 가족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인 삶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회복을 위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헌연구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51개의 교정시설에 매일 30,181명의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다. 출소인원은 한해 54,297명으로 파악된다(법무연수원, 2015).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국가나 민간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수용된 인원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형제나 자매를 교도소에 보내고 세상에 남겨져 고통당하는 가족이 수용자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다. 수감자 자녀에 대한 조사도 얼마 전 부터 사회복지계를 앞둔 수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의하면 수용자의 60%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확인되었는데(법무부, 2014) 연간 교정시설 입소자가 10만 명 가량이니 한해 6만 명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가 수감되는 경험을 했다고 예측할 뿐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과 비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Sheldon과 Glueck(1950)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부모나 형제·자매가 범죄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고 그 후, Robinson과 동료 등(1975), McCord(1977), Wilson(1987)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범죄성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박선영·신연희, 2012 재인용).

이처럼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미국의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범죄 분석을 위한 접근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다가 연구의 관심은 점차 가족의 부재가 가족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갔고 다양한 연구에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자녀들은 이사 또는 전학을 하고 이런 사건은 학교 생활에 손상을 가하게 되어 비행친구와 쉽게 어울리거나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기 쉽다는 부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Bilchik, 2007).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은 우울, 불안감, 죄책감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와 갖고 있고 학교부적응, 무단결석, 공격행동 등의 외현화와 같은 심리정서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Lee and Fang, 2013; Murray and Farrington, 2008).

이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고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멘토링 시책을 펼치거나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주정부, 교정기관, 대학 등에서는 민간단체나 협력하여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수용자 자녀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무부 차원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전국조사나 종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차원의 개입보다는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수용자 자녀지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고 일부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박선영·신연희, 2012).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수용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연구

동향은 오랫동안 수용자 자녀를 연구해온 신연희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 가족에 대한 초기관심과 연구는 기혼 여자재소자의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다(신연희, 2002). 이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 비행 청소년의 28%가 가족 중에 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는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의 범죄와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신연희·이백철, 2008).

2008년부터는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가족방문이나 가족관계 프로그램 실태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족건강성이나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 되었다(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 이윤호·김순석, 2008; 전영실·신연희, 2009; 신연희, 2011; 신연희, 2013). 이처럼 수용자 가족에 대한 실태는 개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었고 2012년에 와서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살펴보는 연구가 시도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비로소 수용자 가족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사가 법무부 차원에서 실시되었다(박선영·신연희, 2012). 최근 들어서 가족의 특성이나 수감자 자녀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박선영, 2013; 신연희, 2014; 신연희, 2015c; 이경림·최경욱, 2016; 신연희, 2016).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수용자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수용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률은 16.5%(신연희, 2015b), 법무부 사회복귀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5.9%로 나타났다(법무부, 2014). 이를 통해 수용자 가정의 16%가 우리 사회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 수용자중 법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수용자는 36.2%에 불과했다(신연희, 2015b), 다수의 수용자 경제적 빈곤상태이며 가족구조가 해체 내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장이 수감되었을 경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수감되기 전 저소득층 가정이었을 경우 남겨진 수용자 가족은 빚이나 수용자의 자녀를 키우느라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신연희, 2015a). 수감 초 수용자의 자녀는 75%가 남아 있는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되지만, 수감 말 조사에 의하면 그 수는 65%로 10%나 줄어들어 있고 수용자 가정 자녀 세 명 중 한 명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척, 시설에 맡겨져 양육되거나 아이들끼리 살게 된다(신연희, 2016). 이렇게 수감사건은 남겨진 가족의 관계도 단절시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감이 바로 자녀비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자녀들의 생활에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남아 있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자녀들의 문제행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신연희·변호순, 2014). 이는 빈곤과 범죄가 맞물려서 대물림이 악순환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논문은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가족의 특성이나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수용자 가족의 생각과 인식, 그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한국과 비교적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용자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했던 PD가 직접 수용자 가족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쓴 『수감자 가족』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수감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끼친다. 우선,

수용자의 배우자는 심리적 불안정, 수치심, 죄책감, 우울 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하기도 하며 사춘기 자녀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스즈키 노부모토, 2014). 국내에서도 2014년도에 이 책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고 때마침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세움』과 일본에서 수용자 가족을 돕고 있는 『WOH』라는 민간단체가 교류하게 되면서 2015년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세미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언론에 가해자의 실명이 발표되고 신분이 노출되는 일본에서는 수용자 가족들이 진학과 취직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 위기와 파산, 실업과 전직 등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베교코, 2015). 부모의 수감과 상실감은 부모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비유된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과는 또 다르게 수감은 사회적 낙인감까지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행동을 한 부모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가족의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부정적으로 주목받게 된다. 가족의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가족들은 사회적인 곤경에 빠지고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동료집단으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낙인효과는 혈연의식이 강한 국가나 지역의 풍토에서 더욱 심각하다. 가해자 가족은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며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험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죄가 드러나고 가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 가족의 80%가 인터넷에서 비방, 왕따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아베교코, 2016).

국내에서 수용자 가족을 직접 조사한 시도는 이경림과 최경옥(2015)의 연구가 처음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40가정 중 40%가 자녀의 수감으로 인해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손가정이었으며 조부모들의 80%가 질병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되어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가족면회도 못하며 면회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고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부모의 수감사실을 모를 경우 알리지 못해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가족 안에서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껴 손자녀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이경림·최경옥,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수용자 가족은 가족의 수감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해자가 겪어야 할 비난과 죄의식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수용자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삶이 피해자나 가해자로서의 이분법적인 특성으로 예측될 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용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체험하는 삶의 본질적 의미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수용자 가족의 삶에 대한 경험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수용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사회지원과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경험의 현상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이해를 얻고자 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유태균 역, 2005). 특히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데 기초한 학문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실체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풍부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김분한 외, 1999). 즉, 이론이나 설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현상에 따른 연구 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직관에 근거하여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반복질문을 통하여 연구문제에 접근하면서 자료 및 분석에서 인식된 개념이나 기대 또는 틀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는다.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경험의 본질에 접근하며 이를 토대로 조성된 기술에 근거하여 특수한 맥락 속 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홍현미라 외, 2008). 본 연구는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 Giorgi 방식을 활용하였다. Giorgi(2004)는 직접적으로 후설의 현상학적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원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학자이다. 그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포착하려는 현상의 본질을 의식의 경험이라고 보며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여 경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Giorgi, 2004).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수감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수감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론 피해자로서도 살고 있는 이들의 생활경험을 개별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Giorgi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Giorgi가 강조하는 것처럼 본 연구도 수용자 가족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욕구를 파악하고 삶을 파악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밝히기 힘든 어려움을 가진 수용자 가족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석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Giorgi의 분석단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체험을 파악하고, 의미있는 단어를 확인하며 학문용어로 환언하고 주제를 찾고 표현하는 과정(이남인, 2014)에서 사회복지적인 실천함의를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 2) 연구 참여자

질적연구는 표본의 대표성보다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가족의 수감이유와 수용자와의 관계가 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수용자의 자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으로부터 아동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7명의 가족으로 의도적 표집과정을 통해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수용자 가족으로는 부모나 형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포함되나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하기에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다는 성인들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감된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참여자의 적절성과 충분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녀, 남편, 형제가 수감 된지 1년이 넘는 가족 중에서, 수감의 사유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족구성원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그렇게 표집 된 가족 중 수감이 라는 특수한 주제라는 것을 신경 써서 참여자들과 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 들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연구과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시간과 거리 등이 적합한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경제수준	수용자	수감이유
참여자1	여	60대	수급	아들	살인
참여자2	여	40대	수급	남편	사기
참여자3	여	40대	저소득	남편	특수강도
참여자4	여	40대	저소득	남편	살인
참여자5	여	60대	저소득	아들	살인
참여자6	여	50대	수급	동생	특수강도
참여자7	여	60대	수급	딸	공금횡령

###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5월부터 8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설명한 후 다시 전화 문자로 안내하여 참여의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참여에 동의한 분들 중 7명을 선정하였다. 첫 만남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개별 인터뷰 시 녹음에 대한 허락을 구하여 동의를 얻었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회당 사례금을 별도로 지원하였다.

연구과정은 ‘수감’이라는 드러내기 힘든 주제인 만큼 참여자에게 연락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시도록 배려하였다. 최초의 인터뷰는 개방적인 질문을 해서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는 수감사건이라



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족의 수감과정에서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가족의 수감이후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요?', '가족의 수감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등의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의 형태로 묻는 것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맡기면서 진행되었다(박혜준·이승연, 2009).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 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에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녹음을 한 후 이후 전사하였다. 참여자의 면담횟수는 참여자당 2-3회였으며 면담시간은 회당 평균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집과 독립된 공간이 있는 스터디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하는 주제에서 드러난 그대로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살펴보기 위해 Giorgi의 방식을 활용하였고 Giorgi가 제시한 다음의 5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남인, 2014).

첫째, 연구 참여자 전원의 진술을 모두 전사하여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를 가지고 꼼꼼하게 자료 전체를 쭉 읽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필사하여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직관에 입각하여 느낌을 파악하고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 전체를 다시 천천히 들어가면서 연구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어떤 하나의 의미단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단위로 이행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밑줄로 표시하고 이를 연구자 간 상호 대조를 통해 확인하여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중첩되는 동일한 의미단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의미단위로 바꿔 나가면서 중첩되지 않는 의미단위들을 확인하였다. 넷째, 도출된 의미단위들을 현상학적 접근과 학제적 태도에 입각하여 이론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적당한 학문적 용어가 없을 경우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한 일반적인 용어를 활용하였다. 추상화나 형식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들을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의미범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술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서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단위를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을 나타내는 단위로 묶어 구조화된 틀로 통합하고자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의미단위 간 관계 및 인과성을 고려한 구성요소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 4) 연구 윤리와 엄격성을 위한 노력

질적연구는 자료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개별적인 인터뷰이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가 양적연구보다 더욱 중요시된다(장혜경, 2008). 특히 가족의 범죄사실과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자는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면접에 응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전원에게 연구목적, 방법, 절차, 비밀보장 등의 내용이 수록된 동의서를 제공하였고 이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 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들은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울거나 통곡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마치 고해성사와 같은 경험을 했으며 속이 후련해졌다는 말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미루어볼 때 연구 참여자 개인에게 부적절한 면접과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사적인 정보제시를 최소화 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엄격성을 충족하기 위해 널리 알려져 있는 Lincoln과 Guba의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김미옥, 2008에서 재인용).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험의 진가를 가능하는 척도로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이나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도 현장에서의 실천경험으로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게 되어 고맙다고 하는 등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본다.

적용성은 양적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감자와 가족관계, 수감사유 등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참여자당 2~3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일관성은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질적연구 방법 지도를 받았으며 연구자들끼리 스터디 등을 시도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분석에 있어서 일관성을 얻기 위해 현상학 연구 전문가 1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조언이 경험의 심층적 구조를 탐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이해, 선입견 등을 유념하여 최소화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 면담에서의 메모 기록이나 인터뷰 녹취록을 확인하면서 상호 비교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필사된 자료를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괄호치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만 의미를 둬으로써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판단중지'라는 절차를 수행하며 Giorgi의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이남인, 2014). 연구자들은 5단계를 거치면서 충분히 의사소통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 4.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기술로부터 수용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단위들을 찾아내어 분석단계들을 실행한 뒤 분석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분석에서 드러난 12개의 하위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하위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개념
굴레를 쓰고 살아가다	속죄	자식의 죄값을 치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
	자신이 만든 감옥	세상의 눈을 피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비난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인해 자신이 만든 또 다른 감옥 안에 갇힌 삶
숨겨야 하는 고통	날벼락 같은 현실	너무 큰 충격. 갑자기 일어난 일로 고통스러움
	숨통이 조여옴	억울함. 분노와 원망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답답함
	하루 하루 버티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함. 죄책감과 자괴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살다.
양가감정	가해와 피해의 혼돈	가해자 가족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마음과 우리는 피해자라는 사이에서 혼돈
	동일시와 분리의 경계에서	가족이라는 동질감과 수용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분리되고 싶은 경계에 서있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천륜	수용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크지만 핏줄 때문에 차마 사람은 미워하지 못하는 애잔함
	인간의 도리	가족과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감정이 교차됨
다시 일어서다	아이한테 위로받음	아이가 커가면서 위로가 되고 살아지게 됨
	힘을 내고	살아야 하고 애들을 키우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부여를 함
	새로운 과제	양육하면서 부여받는 새로운 역할과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세상을 다시 보게 됨

### 1) 굴레를 쓰고 살아가다

#### (1) 속죄

수용자의 어머니들은 자식의 범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충격으로 인해 경황이 없을 때는 피해자한테 미안해 할 겨를조차 없었지만 자식이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간 후 하나, 둘 현실

로 돌아오고 나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삶의 과제로 다가왔다. 그 첫 단계로 그들은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매달리고 있었다.

진짜 개가 어찌다가 그랬는지 다 내 잘못 같고..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딸이 엄청난 죄를 짓고 들어갔으니까 그 죄를 어디다가 고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다니란 소리도 안했는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내가 억만금어치에 죄를 지고 내가 살아왔나본데 그 죄를 나한테 주지 왜 딸한테 주셨냐고 기도해요 <참여자7>

이제,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 엄마한테 죄스럽고 그 엄마한테 미안하고... 우리 동생들이 그 애기 이름으로 미사 드리고 헌금내고 그랬어요. 나는 계속 기도만 했고.... 그 엄마가 내 기도로 되겠소만, 맨날 하나님한테 부탁했지요. 내 대신 위로 좀 해달라고.. 그 죄값을 어찌면 좋겠소 <참여자1>

종교와 신앙에만 호소할 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손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었다.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듯이 보였다.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따서 처음 나간 집이 욕창이 너무 심한 환자인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하루 일하고 그만두고 근데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퇴원했다는데 욕창 물질이 손바닥만 한게 전신에 생겨났고 손쓸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남의 손해를 끼친 죄인 어미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시다 했지.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한 간호 책을 읽고 간병하는 사람한테 정보도 얻고 의료가 상가 이런데 가서 물어보구 이렇게 막 하여튼 할수 있는데 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1년 넘으니까 뽕뽕뽕 딱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구 생명의 은인이래요. 죄를 어느 정도 씻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요. <참여자7>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해 본인은 본인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마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일을 반성하고 손자녀를 키우면서 힘을 쏟고 있거나 모두가 기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본인의 삶 자체를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2) 자신이 만든 감옥

남부끄럽다는 표현은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다. 가족이 저지른 범죄나 사건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대놓고 그들에게 직접으로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것은 아니었다. 살던 곳을 떠나 남모르게 이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족의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타인들에게 가족의 수감사실을 어떻게든 퐁퐁 감추며 살고 있었다.

반 년 지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한부모가정 등록하고 거기서 사정을 말하는데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들어왔다고 둘러댔거든요. 사실대로 말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몇 년 받았냐고 이런것도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라고 했더니 “근데 경제사범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정말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찌나 ‘사실을 말할 수 없으니 아빠가 하던 사업이 잘 안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둘러대자고’라고 했어요. 애들이 받아 들이더라고요. 주위 친구들이나 애들 친구엄마들이 물어보면 아빠는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부터는 남편 사건이 알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났어요. <참여자3>

교회 사람들도 고모랑 산다는건 알지만 아빠에 대해서는 모르죠. 애들 아빠는 그냥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아빠 얘기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깐 말 못하죠. 근데 애들이 듣고 있을 때 꼭 거짓말을 해야 되니깐 그게 항상 안 좋죠. 나중에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내가 먼저 얘기해요 내가 너 듣는데 거짓말을 했다. 근데 너를 위해 한 선의의 거짓말이다. 너는 고모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참여자6>

가족의 범죄나 수용사실은 남에게는 물론 친척들한테조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이었고 누가 감옥에 있는 내 자식을 만나러 갈까봐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겨우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는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피하고 자신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마음을 가두고 있었다.

남편이 어느 날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짐을 챙겨서 밤에 나오는데 낮에는 남부끄러워 못나오잖아요. 밤에 가야한다고 12시에 짐을 싣는데.. 그 동네를 벗어나니가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니까 거기보다 낫고... 휴... 하고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추적할까 나를 쫓을까 두려움이 살피졌어요.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우리 손주한테 복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누가 뒤에서 손짓할 것 같았어요. 욱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는 사람들과 마주칠까? 누가 우리 손주 쳐다볼까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었어. 그런 세월이 세월이여? <참여자1>

그러나 다른 사람을 피해 이사를 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지켜내고자 했지만 자신이 만든 감옥은 쉽게 나올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그 때의 사건을 설명할 때도 마치 누가 엿듣거나 하듯이 속삭이듯 입모양으로만 말을 하고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도 ‘그 때’, ‘그 일’이라는 표현으로, 감옥보다는 ‘거기’라든가 교도소가 있는 지명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속죄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채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기도 했다.

## 2) 숨겨야 하는 고통

### (1) 날벼락 같은 현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굳고 백지화되는 현상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얼음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은 충격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사고가 경직되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갑자기 들려온 가족의 수감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다가왔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고.. 이게 뭐지...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벌러 갔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에 연루 되었다니까 뭔가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오히려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 전화주신 경찰관을... <참여자4>

남편이 돈 마련하려고 사람들이랑 나쁜 짓을 했다가 도망갔는데 아무래도 지수를 해야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기본 상식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아...(울음)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 행동은 지금도 이해가 안돼요.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하늘이 캄캄하고 그냥 너무 막막한 거예요. <참여자3>

갑작스럽게 전해 받은 가족의 수감사실은 심장이 멎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갑자기 들려온 사건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한 현실을 예고해주는 전초전과도 같았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2) 습통이 조여옴

가족들은 수감사건으로 인해 받은 충격으로 두려움, 수치심 같은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 힘들기도 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습통이 조여 오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미 수감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적 문제가 어쩔 도리가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니 가족의 고생과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1년에 이사를 50-60번 했을 거예요. 여관에서 잔적도 있고요. 여관 갈 돈 없어서 애들이랑 폐차에서 잔적도 있고.. 빈 집에서 잠깐 살았는데 방을 보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희는 서있기만 하거든요. 그럼 저희를 쫓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어마어마해요. 아~ 이거를 말로 어떻게 다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 전 검정 봉다리에 소주 사와서 밤마다 술 먹고 애들이랑 같이 죽자고 그래요. 그러면 습 막히고... 그 술 먹는 돈으로 애들 준비물이라도 사줘야할 텐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참여자2>

원망과 억울함은 가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해올 때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다른 가족에게 준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심리적 상처뿐 아니라 결국 이웃과의 단절이나 가족과의 이별을 고했다. 그동안 살아왔던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 사건이 방송에 원래 보도가 되면 안되는 건데 경찰 쪽에서 정보를 유출해서 내보낸 거예요. 얼

굴까지.. 그래서 그 방송 목격한 사람은 저랑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 집으로 밤에 그것도 9시 넘어서 아무런 통보 없이 엄마하고 저하고 애하고 셋 있는데 남자 둘에 여형사 한명이 저희 집에 쳐들어 온 거예요. 저희집에 증거 물품 있는가 뒤지고.. 저희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제 휴대폰 뺏어가고 2주 동안 주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구요. 그 때 엄마가 충격으로 심장이 안좋아 지셨고 저는 집에서 그 길로 쫓겨 났어요. <참여자4>

수용자 가족들은 숨통이 조여 올 것 같은 고통도 가족들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교인들이나 성당교우에게 조차에게도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직장 동료는 물론 아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드림스타트 관리자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행여 아이한테 물을까 봐..이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니 그 조마조마하고 답답한 심정이야 어찌겠나. 뿐만 아니라 알릴 수가 없으니 자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냐고 주위사람에게 도움요청하기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내내 지금껏 가족들끼리도 쉬쉬하기만 했지 이렇게 고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 (3) 하루 하루 버티다

가족들은 너무 큰 충격으로 역장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다. 피로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고 버티 낼 힘이 없어져 정신을 놓기도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했다. 자신이 어떤 조금만 잘못해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자식 잘 키우고 살았냐'라는 소리를 가족에게 듣고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고 심지어 자식얘기를 남편한테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저는 아들 사건을 듣고는 자살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 들어오는 때를 잘 아니까 그때 바다로 가서 죽어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찾지도 못할 테니까.. <참여자1>

처음에는 가족의 끔찍스럽고 부끄러운 그 죄로 인해 수치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생각하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생활고로 인해 고통스럽고 막막한 현실에 또 다시 무너지고 만다. 그 충격을 받고서도 곳곳이 버티었었는데 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상처 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정을 해봐도 거절을 당하니 이들은 또 다시 죽음을 생각했다.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밤에도 혼자서 그렇게 울고 화병이 생겼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죽어 버릴까..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울컥) 근데 애가 엄마만 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버티고 살겠다고 했는데 애를 너무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래서 애랑 같이 죽어야겠다... 정말 길거리에서 민들레 그

런 걸 따서 반찬 해먹고, 물로 배 채우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몸이 이러니 일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주변 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없이 집에서 햇빛도 못 받고 계속 집에서 반 지하에서 거 거서 쭉그리고 앉아서 겨울에 난로도 보일러도 못 틀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서 있고 <참여자4>

남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죽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딱 일이 터지니까 죽는 게 안 무섭더라고요. 이 세상에선 답이 없는 거예요. 양쪽 집 다~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걸때가 한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죽고 싶다' 쳤더니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나와서 전화해서 막 울었거든요. 상담원은 괜찮으냐고 묻는데 그냥 답답했어요. 그 분이 해주시는 거는 들어주시는 건데 마음에 위로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끊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7인 모두 여성들이었고 수용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조카를 키우고 있는 참여자6을 제외하고는 가족의 수감이후에 혼자 거주지를 옮겨야 했고, 직업을 가져야 했다.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가족의 동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하루를 버티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오늘이 마지막이고 지원 못 받으면 죽을 거라고 협박해서 겨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 3) 양가감정

#### (1) 가해와 피해의 혼돈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이 수감된 후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자신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안해하는 심정을 갖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모와 차가운 시선을 경험 하면서도 그 모든 걸 겪어냈다.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거길 사죄 인사하러 애들 고모랑 찾아갔는데 직원들이 우릴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지. 그래도 어떡해.. 만나줄때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는.... 근데 저는 직장에 나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년 같애.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참여자3>

내 형편과 처지에 무슨 잘났다고 무슨 말을 해. 막 무언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냥 탁 마음을 내려놔. '아들이 죄인인데 나는 할 말 없어' 마음속으로 그래버리면 말을 하기 싫어 버리더라고요. 공개 남이 막 조잘조잘 뭐라고 해도 그냥 듣고만 있어. 자식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마음이 숙연해져요. <참여자1>

그러나 그러면서도 때론 수감된 가족과 피해자인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들을 꺼내보였다. 그 범죄 자체와는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범죄의 원인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가족은 단지 피해자라고 경계를 뚜렷이 긋고 있었다. 자신과 아이들은 피해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과 한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삶이 혼재되어 있다.

면회 갈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하지 이 미친놈아 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하지...근데 그저 지 자식새끼만 아까운거야 그냥. 그래서 밋더라니깐 빈말이라도 누나한테 미안하다 하고 애들한테도 고모 말씀 잘 듣고 그래야 된다고 말했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생전 안하고 속으로 내가 몸이 아픈데도 지 새끼 키우는데... 그리고 애들이 가끔 속 썩일 때면 고모는 무슨 죄가 있어서 시달림 받으면서 사느냐고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애들은 또 무슨 잘못이야 <참여자5>

## (2) 동일시와 분리의 경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가정의 보호자들보다도 더 유난히 강조하고 아이들의 행실을 철저히 감독하려고 한다. 조금만 애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비뚤어져 나갈 때마다 부모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딘가에 수용자와 닮아있는 구석이 있을까봐 보이는 극심한 불안감이 표출이기도 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손주가 나쁜 애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뭘 훔치다가 걸렸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한숨) 가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럴까 지 엄마도 거기에 가 있는데 지까지 감옥에 가려고 그러는지 싶으니까 역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반듯하게 자라라. 바르게 커라 그제 노래예요.... <참여자7>

저는 경찰서라는 얘기만 나오면 후들거려요. 둘째가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빠가 감옥에 있다고 애들한테 괜히 말했나 아빠가 있었으면 애가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답을 걸 답아야지 아빠가 그런데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요. <참여자3>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범죄가 대물림될까봐 나쁜 행동이 동일시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수용자의 자녀들이 바르게 부모와 다르게 살도록 키워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며 소명이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 자신들은 가해자와 같은 마음으로 잘못을 구하거나 죄 값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 후세대인 아이들은 가해자와 다르다고 분리해내고 있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우울해 질수록 더더욱 부모 인생과 너희 인생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아빠는 무슨 죄로 거기를 갔느냐 물어보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안 물어 봤는데 크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렇게만 했지 얘기를 안 해줬어. 뭐 사람을 죽였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근데 얼마 전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거기를 가 있는데 내가 장래희망이 뭐가 있겠냐고.. 그때 내가 답변할 수가 없어서 니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다. 너희 아빠 죄를 가지고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지 맘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그냥 니 할 도리 해라. 너는 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만 말했지... <참여자5>

반듯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꺼내 놓는 것이다. 이것은 혹시라도 부모와 닮았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 혹시라도 부모와 닮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이 모습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통념에 대한 강한 부정이기도 했다.

#### 4)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 (1) 천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이 수감되기 전 그들이 가족들과 나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랬기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수감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같은 미움과, 절연하고 싶을 정도의 차가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다는 마음을 비슷하게 품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천륜으로 표현되는 핏줄로 엮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심정으로 보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아주 나쁜 아이 같죠? 그렇게 안했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착하고 그랬다니까 엄마를 엄청 좋아했어. 우리 애가 안쓰러워 죽겠어. 그 좋은 가정에서 그렇게 좋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돼서버려... <참여자1>

실망감과 분노감은 애증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족은 결코 미워만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원망했다가도 결국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본인은 죽음의 문턱을 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차마 힘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표현 속에 부모의 애달픈 고통이 비쳐진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놓아주지도 않고 몰래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어. 근데 너무 애가 순진하다 보니 때리면서 나쁜 짓을 시키니 얻어맞고 억지로 한 거야.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었나봐. 돈을 얻어오라고 해서 그 착한애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나쁜 짓 시킨 그 사람이 그 놈이 제일 원망스럽지.. 그 사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이럴 일이 없을 테니까...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참여자5>

근데요 죄만 밟지 사람은 안 미워요. 편지를 봤는데 아들 얼굴 본 것 같더라구. 그 놈을 맨날 쳐다 보고 울었어요. 편지가 꼭 아들 같애. 자식한테도 미웁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네가 설마 그랬겠나 네가 설마.. 아들 만나면 원망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싶었는데 내 아들한테 못하겠습디다. 남이면 당장 하지 근데 못하겠더라고 내 자식 상처 입을까봐 힘들까봐 못하겠더라고... <참여자1>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수용자와 자신을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기도 했다. 애들이 불쌍하고 그게 핏줄인데 내가 좀 노력하면 이걸 끊지는 못하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되었다. 가장 불쌍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 주어야 한다는 천륜 같은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형제가 싸우더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푹푹 멍치는 경향이 있어요. 형제들이 애들을 어찌냐고 회의를 하는데 아~ 나 밖에 없구나 했어요. 내가 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애들을 고아원을 갖다 줄 거야? 우리 핏줄인데 .. 시택식구면 못 키웠어요. 근데 내 동생 자식이니까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내가 키울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고모네 가서 살자 그랬지 <참여자6>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말했는데 꼭 애가 뭘 아는 것처럼 그 뒤로는 일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놀이터 가서도 아빠랑 온 애들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정에서는 벌써 이혼한 줄 알고 있어요. 인연 끊으라고... 근데 내 새끼 아빠니까.. 남편이 래서가 아니라 내 새끼 아빠니까 아이 옆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참여자3>

## (2) 인간의 도리

수감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그들은 천륜이 아니기에 온갖 분노표출을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다. 핏줄로 얽힌 관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빈자리는 그림고 간절하다. 인연은 인간으로서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 범죄행위는 차마 밟지만 용서 아닌 용서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내팽겨 칠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다시는 애들 볼 생각 말라고 그랬어요...진짜 너무 배반감이 커서 진짜 가장 큰 형벌은 아이들을 못 보는 거다.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막내가 아빠를 찾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큰애랑 둘째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데 면회를 가기도 어렵고.. 너무 멀고 돈도 없으니 자주 못가고.. 다 불쌍하고...<참여자3>

연구 참여자들은 수용자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갖는 연민감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용서도 아니라고 했다. 사랑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다.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연민과 애증의 다리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한테도 한번쯤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남들은 욱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죄를 충분히 뉘우치면 그래도 한번 단 1년이 되었던 단 몇 개월이 되었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4>

면회 갔을 때마다 사식 넣어주고요. 돈 넣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안에서라도 있는 놈은 잘 지내고 없는 놈은 그렇다고... 그래서 5만원 넣어주고... 이 몸으로 5만원 벌려면 힘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병원도 못가고 애들한테 안 쓰고 거기 가서 사식 넣어주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대요. <참여자2>

실제로 우리는 보통 범죄인이 자라난 가정은 문제 부모나 문제 가정일 것이라 생각하곤 한다.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그 가정이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범죄는 부모나 가정 탓이 아닌 경우도 있다. 특히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범죄일수록 훨씬 깊고 비논리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는 가족의 고백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5) 다시 일어서다

### (1) 아이한테 위로 받음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는지 묻게 되면 한숨을 푹 쉬면서 힘들었는데 살다보니 그러저럭 살아지더라는 게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세월이 가니까 남편이 살자고 합디다. 애기도 크니까 잘 살자고 다 잊어버리고 살자고 위로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애가 커지니까 아이한테 힘을 얻고... 다 핑계죠. 변명이죠. 제가 살고 싶은 건지 모르겠죠. 근데 애 키우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아이를 통해 힘을 얻고. 아이가 지금은 감사해요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친자식 같고... 그때 옛날에 자식 키우던 그 기분이 들어요. <참여자1>

애들 있으니까 사람 사는 거 같지.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속 안 썩이고 사는 부모는 없거든. 그래서 고모가 이렇게 도와주고 고모가 너 공부 가르칠 거니까 걱정 마. 고모가 집 팔아서 너 공부시켜줄게 그랬어요. 내 핏줄인데.. 내 핏줄이잖아요... 내가 개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없는 애들 같아 보이지 않게 운동화 짝짝 빨아주고 독감주사 맞히고 내가 더 악착같이 해주지 <참여자6>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족으로 위로받고 차차 상처가 아물고 아이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었다. 수감사건은 잊혀 질 수 없는 상처이기는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그렇고 그렇더라는 또 다른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다.

## (2) 힘을 내고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다. 갑자기 가장이 되고 나니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불쌍한 애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정신 차려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민 센터도 스스로 찾아가고, 직업도 갖고, 살기위해 몸부림 쳤다.

집에 오면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짜증나서 막 구박하지.. 저것들 때문에 내 딸이 거기 있나 생각 해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하고...근데 애가 마음을 붙일 때가 없으니 '할머니 나도 힘들어. 할머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 할머니는 나한테 화풀이 하지만 나는 누구한테 하냐고 나는 엄마가 없잖아' 그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랬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애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1년이 딱 지나니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애들을 보듬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어요. 밤에는 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거든. 그래서 독하게 공부했더니 의외로 시험이 쉬운 거야. 딱 붙었지. <참여자7>

연구 참여자들은 이사도 해야 하고 새로 살 동네도 찾아서 집을 알아봐야 하고 돈도 구해야 하고 정신없이 살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을 찾았고. 그래서 힘든 일들을 잇을 수 있었고 하나씩 과제를 마치고 나니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만족감이 들었다.

이사를 와서 내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 다 끝내놓고 집에 와서 누는 시간이 너무.. 이 공간이 감사하고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을 뻔 했는데 그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일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해치고 이사를 해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 그걸 나 혼자 했다는 거... <참여자3>

가족의 수감은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이고 충격이었지만 때로는 연구 참여자들을 강하게 다지는 연마제가 되기도 했다.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 서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꿈을 갖게 되었다는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기도 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나니 '죄가 무엇인가, 누가 누구에게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들은 세상을 향한 시선을 바꾸기도 했다.

저는 그게 가장 밑바닥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더 내려 갈수도 있구나 내려가는 거는 죽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밑바닥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계기가 생긴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남들한테 좀 더 인간답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4>

## (3) 새로운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기대감이나 희망보다는 다가오는 삶과 고난에 묵묵히 맞서고 자신의 새로운 과제

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비록 그들 부모는 감옥에 있지만 애들은 저렇게 잘 자라고 있고, 더 잘 키워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부귀영화를 보려고 너를 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핏줄이라고는 그거 하나뿐인데 너 잘되고 이쁘게 크라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대가 받으려고 너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속으로만 그러지.. <참여자1>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먹고 교훈도 얻고 자신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한다. 어두움의 끝에서 빛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의 과제와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두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대하고 그 사람이 범죄자든 거지든 청소부든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사람 자체. 그 사람 마음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4>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향한 책임이며 자신의 소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새로운 과제는 세상과 맞서서 가족을 지키고 질곡의 삶을 승화시켜 묵묵히 아이들에게 내어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명예를 잃어졌기에 당당하고 힘있게 걷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은 묵묵히 세상과 맞서며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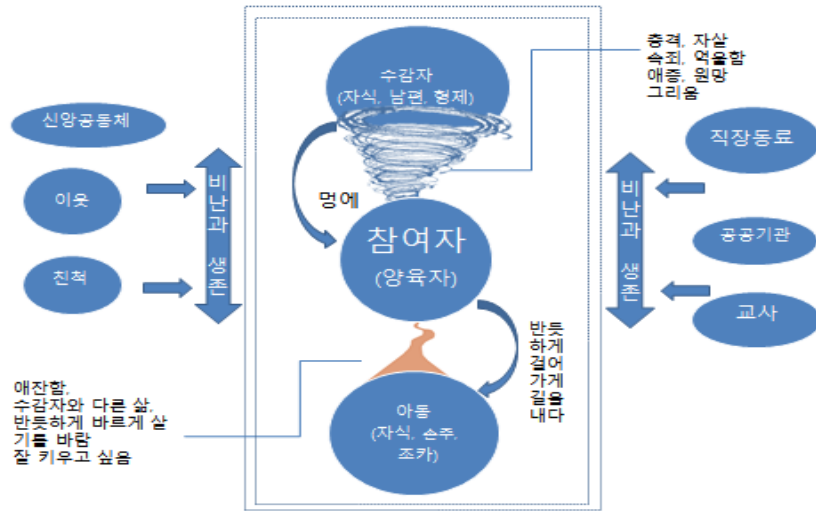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비난과 생존의 혼돈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의 고유한 경험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용자 가족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본질은 「명예를 잃어지고 삶과 맞서다」라고 해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용자로 인해 가족에게 쏟아질 비난을 막아내고 수용자와 자신, 아이들과의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범죄와 빈곤의세대단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삶은 수용자 가족이라는 명예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바르게 걷도록 보살피야 한다는 비난과 생존의 경계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세상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가족의 수감사건으로 인해 받은 비난과 생활고로 인한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명예를 잃어지고 양세대의 애증의 양가감정을 탈피하고 가족들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모습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었다.



〈그림 1〉 연구결과 모형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이 아닌 가족의 수감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수용자 가족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처럼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남에게 드러낼 수 없었고 위로나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나 연구도 되어 있지 않다. 취약 가정이나 아동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수용자 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낙인감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복지공단 내에 가족희망센터가 마련되었지만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교정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아직까지 수용자 가족의 삶과 자립,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건으로 부모와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하고 손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족들은 사회적 특수 취약계층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수용자 가족의 권리구제, 제도개선을 위해 국가와 민간단체의 공동의 관심과 지원이 학술연구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을 돕고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과 사회복지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가족의 긴급적인 지원과 위기개입이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용자가 가장이었을 경우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컸다. 가족의 범죄와 수감사건은 가족이나 사회적 지원도 끊기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지원조차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막한 현실은 연구 참여자들을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수감되기 전부터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수감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어 남아있는 여성이나 노인

들은 더욱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혼이나 가족해체 비율도 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살피며 수용자들과 인연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전에 교정복지와 가족복지를 향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런 위기에 봉착한 수용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있어야만 아이들도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회복되어만 수용자들도 출소 후 다시 가족과 재결합하여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문제는 인도적이면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수감으로 인해 양육자가 변경되는 아이들에 대한 친인척 위탁가정 제도나 수감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가정을 위한 주거정책이나 남은 가족의 직업연계, 자녀들의 학업지원 등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용자 가족 중 특히 자녀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양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에 대해 갖는 수치심이나 분노, 우울 및 위축 등의 감정이 나타나고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맞물려 더욱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연구결과 수용자 가족들의 삶의 책임은 수용자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닮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수용자 자녀가 겪는 상처와 방황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양육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투입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심리적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채 삶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비행이나 위기청소년이 되어 더욱 취약하게 살아갈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수용자 자녀양육에 대한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 자녀와 수용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단체와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프로그램과 사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수용자 자녀를 돕기 위한 멘토링이나 양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고 연구도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지원이 활발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수용자 가족을 위한 안내책자, 자녀양육 가이드북, 아동의 교도소 방문과 가족모임 지원 등 수용자 가족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수용자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용자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민간차원과 정부의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적 측면에서 부모와 분리될 때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교정정책이나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확보의 문제로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수용자 가족을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아직도 많은 수용자 가족들은 가족의 비밀을 감춘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이들 역시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아닌 곳에서 권리침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이 연구가 수감자 가족의 경험이지만 이것이 가족 전체의 경험으로 구조화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수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족 내 위치에 따라 그 반응과 의미구성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위치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가족의 경



힘의 본질구조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수용자 가족이 경험하는 세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봤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수용자 가족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이 하루 빨리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수용자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미옥, 200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2): 99-129.
- 박선영·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 2013,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자녀지원과 경찰의 역할”, 『자치경찰연구』, 6(1): 117-138.
- \_\_\_\_\_, 2016, “수감자 자녀 인권관점으로 본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 『한·미·일 아동인권관점에서 본 수감자 자녀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박혜준·이승연 역,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Irving Seidman,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Revised edition edition)*, 학지사.
- 법무부, 2014, 『가족사랑캠프 평가보고서』,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 법무연수원, 2015, 『2014 범죄백서』.
- 신연희·변호순, 2014, “아버지의 수용과 자녀들의 문제행동 :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미국의 사례”, 『교정연구』, 63: 145-171.
- 신연희·이백철, 2008,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법무부.
- 신연희, 2011,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교정담론』, 5(2): 111-146
- \_\_\_\_\_, 2013,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과 가족건강성 효과평가”, 『교정연구』, 59: 103-126.
- \_\_\_\_\_, 2014,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 및 자녀양육자들의 프로그램 욕구와 클라이언트중심 접근의 적용”, 『교정담론』, 8(2): 281-306.
- \_\_\_\_\_, 2015a,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토론자료』, 아동복지실천회세움.
- \_\_\_\_\_, 2015b,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_\_\_\_\_, 2015c,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출소준비 수행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51: 219-249.
- \_\_\_\_\_, 2016,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0(1): 129-158.
- 아베 교코, 2015, “WOH지원”,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토론자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_\_\_\_\_, 2016, 『한·미·일 아동인권관점에서 살펴본 수용자 자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심포지엄 자

- 료집』,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유태균 역,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Deborah K. Padgett, 198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 나남.
- 이경림 · 최경옥, 2016, “이 땅에서 수용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정담론』, 10(1): 159-196.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한길사.
- 이윤호 · 김순석, 2008, “수용자와 가족간의 친밀도가 수형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4(2): 105-126.
- 장혜경, 2008,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 전영실 · 신연희 · 김영식, 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 · 신연희, 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교정연구』, 45: 279-303.
- 한진여 역, 2014, 『가해자 가족: 공동 책임자인가 또 다른 피해자인가』, 鈴木伸元(스즈키 노부모토), 2010, *加害者家族*, 섬앤섬.
- 홍한별 역, 2016,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Sue Klebold, 2016, *A Mother's Reckoning: Living in the Aftermath of Tragedy*, 반비.
- 홍현미라 외,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 Bilchik, S., 2007,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 Issue 10”, Mentor, National Mentoring Foundation.
- Hostetter, E. C., and Jinnah, D. T., 1993., *Research Summary: Families of Adult Prisoners*, Prison Fellowship Ministries.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2-55.
- Miller, Kava M., 2006, “The Impact of Parental Incarceration on Children: An Emerging Need for Effective Interven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4): 472-486.
- Murray, Joseph, 2005, “The Effects of Imprisonment on Families and Children of Prisoners” in *The Effects of Imprisonment*, edited by Liebling, Alison and Maruna, Shadd eds., New York: Willian Publishing, 442-462.
- Murray, Joseph, and David P. Farrington., 2005, “Parental imprisonment: effects on boys' antisocial behaviour and delinquency through the life 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2): 1269-1278.

Abstract

**A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Experiences of  
Prisoners' Families**  
- Driven into Blame and Survival Situation -

**Choi, Kyoung Ok**

(Researcher of child welfare practice seum)

**Lee, Kyung Rim**

(President of child welfare practice seum)

This study aims to provide evidence for supporting the families of people in prison, through understanding their families who have suffered for their imprisonmen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seven family members with their spouse, son or daughter, or sibling in prison.

The Giorgi's approach of analysis for th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prisoners' families.

This qualitative research drew five components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s of prisoners' families : 'Living with the bridle named as the family of a prisoner', 'The pain having to hide from the public', 'Having ambivalence', and 'condemn the sin, but no the sinner', 'Picking oneself up' .

The essential subjection of their experiences was interpreted into 'Face life, , with being under a yok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actical intervention of social welfare is needed to support the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recovery of the prisoners' families.

Key words: prisoner, families of prisoners, children of prisoners,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일 : 16. 12. 01, 심사일 : 16. 12. 14, 게재 확정일 : 17. 02. 14]